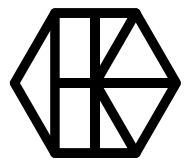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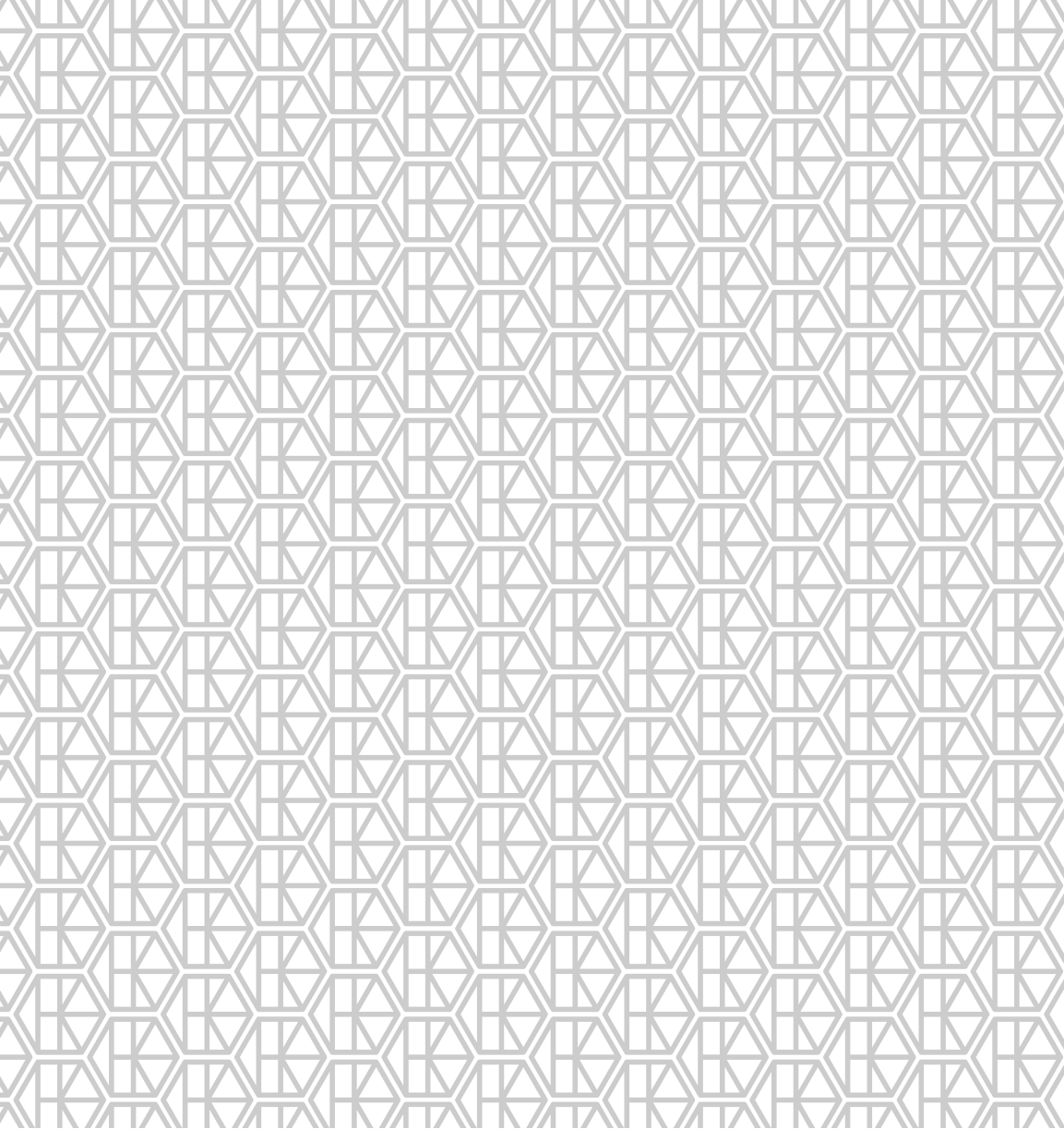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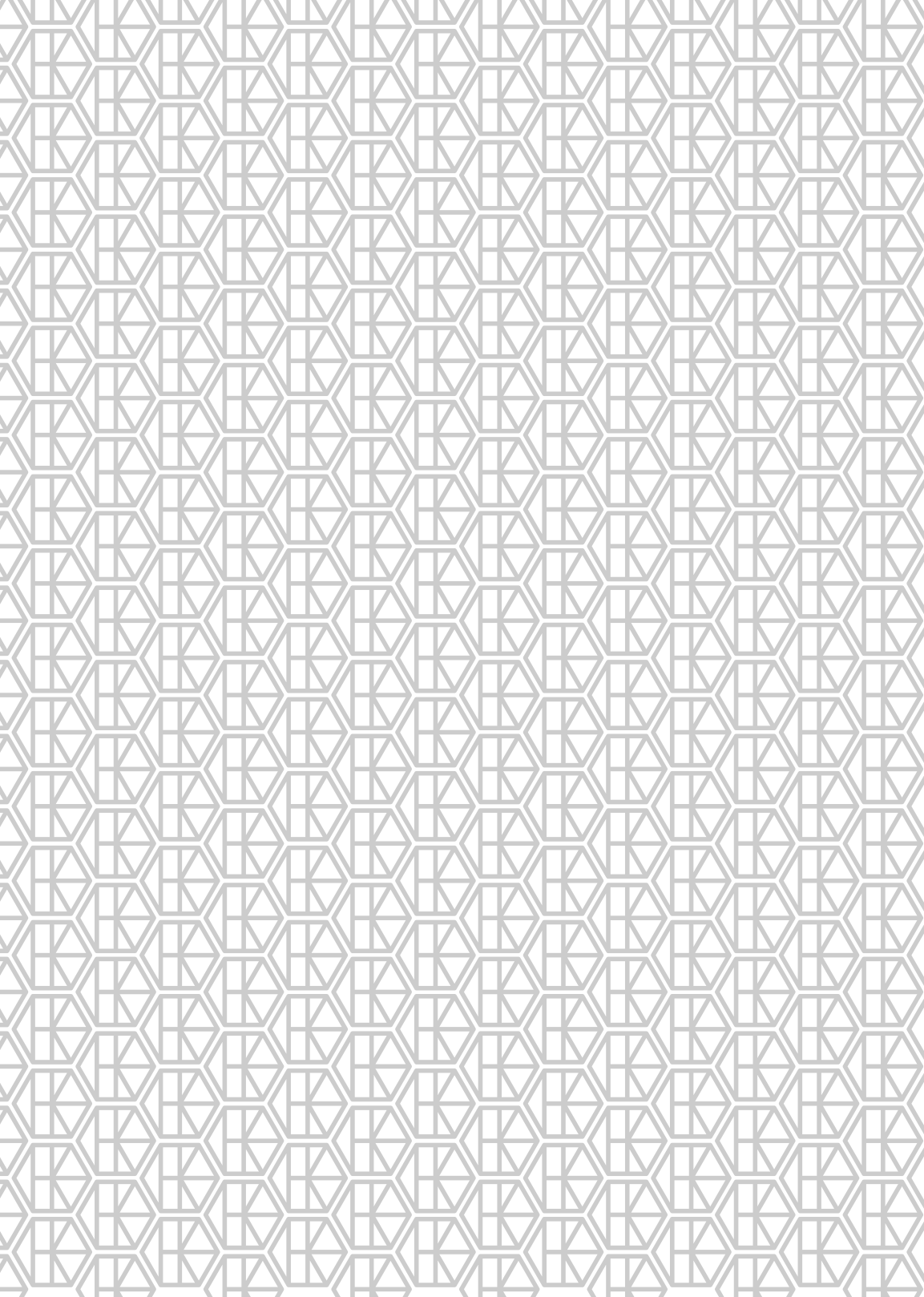
행성인 회원을 위한
HIV/AIDS 가이드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



목차

HIV/AIDS 인권운동, 감염인 인권이란?	1
HIV/AIDS 관련 용어정리	2
행성인 HIV/AIDS 인권팀 소개	3
행성인 HIV/AIDS 인권팀 활동편람	4
HIV/AIDS에 대한 기본 의학적 지식	14
HIV/AIDS의 역사	18
한국의 HIV/AIDS 정책과 현황	24
감염이 되었을 때 대처방법과 지지자원	25
HIV/AIDS 감염인 회원과 함께 하는 행성인을 위해 필요한 10 가지 에티켓	34
영혼을 살리는 공감과 격려, 그리고 함께하기	37

HIV/AIDS 인권운동, 감염인 인권이란?

HIV/AIDS 인권운동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없애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법제도, 사회문화적, 커뮤니티 내부의 차별을 제거하고, HIV/AIDS 감염인의 인권과 커뮤니티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향하며 에이즈라는 질병이 ‘죽음의 병’, ‘문란한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게이들만의 질병’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HIV/AIDS 인권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커뮤니티 내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에이즈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연대**를 지향하는 활동이며, 커뮤니티 내부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HIV/AIDS 관련 용어 정리

HIV/AIDS 감염인

‘HIV/AIDS 감염인’은 통상적으로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PL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질병당사자

‘질병당사자’는 최근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HIV/AIDS 감염인 또는 PL과 같은 용어들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쓰임에 따라서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혐오, 낙인, 편견, 배제 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 본문에서는 ‘HIV/AIDS 감염인’으로 용어를 통일 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성인 HIV/AIDS 인권팀 소개

HIV/AIDS 인권팀은 HIV/AIDS 감염인과 에이즈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안팎의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 확립을 위해 활동합니다.

행성인 HIV/AIDS 인권팀 활동편람

2010

HIV/AIDS 인권팀은 2010년 8월 발족했습니다.

발족 이후에는 인권팀 설립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에 당선되어 3년간 장기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2010. 8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발족

2010. 12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3개년 사업 당선
(2011-2013)

폐인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캠페인 진행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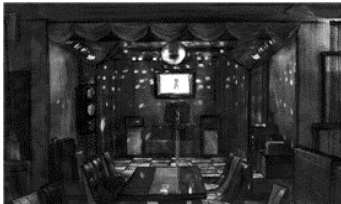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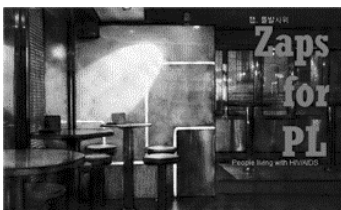
2011년 인권팀은 에이즈 이슈를 환기시키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중들의 참여가 가능한 전시와 글쓰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8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에 참가하여 국내외 질병당사자와
질병취약계층을 만나고 에이즈에 대한 식견을 넓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HIV/AIDS 인권포럼을 열어
문제의식을 다듬었습니다.

2011. 4

전시·이벤트 〈성소수자 HIV/AIDS, 그 달관의 경지〉
프로젝트 글쓰기공모전 진행

2011. 8

국제행사 제 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AP
10) in 부산 참가



2011. 10

전시·이벤트 <LGBT & AIDS, 그 달관의 경지>

프로젝트 미술전시 Zaps for PL in 이태원 골

출판 Zaps for PL 도록&문집 발행

2011. 11

토론회·포럼 Mapping for Act, Mapping for Us!

- HIV/AIDS 인권팀 포럼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에이즈 문화사,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점점 만들기,

청소년 및 국제연대 논의

2012

2012년 인권팀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HIV/AIDS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관련기관과 예방단체, 감염인 자조모임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에이즈 관련법과 언론, 캠페인을 분석하여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동인련 내에서는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HIV/AIDS 인권팀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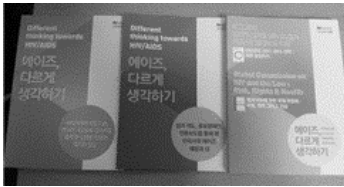
2012. 4-10

인터뷰·연구 국내 HIV/AIDS 관련기관, 감염인 자조모임
인터뷰 및 보고서 <국내 HIV/AIDS 관련기관, 감염인 자조모임 인터뷰를 통해 본 HIV/AIDS 감염인 인권과 복지의 현실> 작성

* 남성동성애자 HIV/AIDS예방단체 iSHAP,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가톨릭 레드리본, 상담간호사,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10-20대 감염인모임 <알>, 대구·경북 감염인모임 <해밀>

2012. 6-8

교육 HIV/AIDS 인권팀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진행



2012. 11

토론회·포럼 에이즈, 다르게 생각하기 토론회

- 톡(talk) 까놓고 쟁점토론(예방법, 언론, 캠페인)
- [보고대회] HIV/AIDS 관련기관, 감염인 자조모임
인터뷰를 통해 본 감염인 인권과 복지의 현실



2012. 12

캠페인 <나는 당신과...>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캠페인 영상 제작

(http://youtu.be/J_vTHS_XeMQ)

번역 UNAIDS 2011-2015 전략: 제로 달성하기 /
법과 HIV에 관한 국제위원회: 위험, 권리 그리고 건강

2013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오래 몸을 담았던 4-60대 남성 동성애자
감염인의 생애사를 다룸으로써 인권팀은
질병당사자들의 삶에 좀 더 밀착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뤄지는 에이즈
활동단체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대중들에게
에이즈이슈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자 게이
커뮤니티 내부 HIV/AIDS 유관단체 및 이반시티와
함께 국내 최초로 RED PARTY를 기획하고, iSHAP과
공동 콘돔배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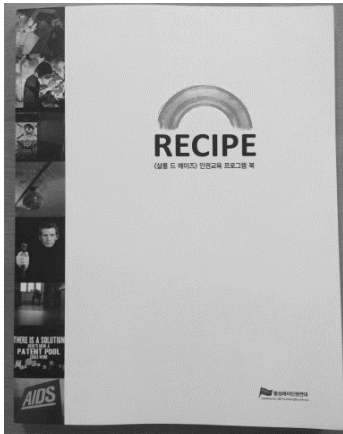
2013년은 HIV/AIDS 인권팀의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권팀은 그동안 진행했던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매뉴얼을 발행하여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3.4-12

인터뷰·연구 4-60대 남성 동성애자 감염인 생애사
인터뷰 및 연구 보고서 발행

2013.5-7

교육 HIV/AIDS 인권팀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진행



2013.9~11

출판 HIV/AIDS 인권팀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매뉴얼 RECIPE 제작



2013. 11

캠페인 에이즈의 날 캠페인 iSHAP & 동인련
공동콘돔배포 및 리본프로젝트

캠페인 RED PARTY (동인련, 친구사이, 이반시티,
퀴어문화축제)

캠페인 사회적 차별: MSM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적 HIV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아시아태평양지역 MSM



2014

2014년 행성인 HIV/AIDS 인권팀은 지난 3년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례 세미나를 통해 팀
역량을 강화하고, 살롱 드 에이즈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날 즈음에는 행성인
HIV/AIDS인권팀을 비롯한 게이커뮤니티 안팎의
HIV/AIDS유관단체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
HIV/AIDS인권주간 ‘만나자 쫘’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문화제와 캠페인,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014. 2

연구발표 LGBT 인권포럼

“당신의 궤적 - 성소수자 생애 연구 발표”

2014. 4 -

세미나 HIV/AIDS 인권팀 세미나

2014. 6

이벤트 2014 퀴어퍼레이드 부스 참가

with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 커뮤니티 '알')

2014. 7-8

교육 HIV/AIDS 인권팀 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진행

2014. 11-12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 만나자 쯔!!

2014. 12

전시·이벤트 RED PARTY (동인련, 친구사이,
iSHAP, 이반시티, 퀴어문화축제)



2015

2015년, HIV/AIDS인권팀은 외부교육, 현안대응 등 활동 저변을 넓혔습니다. 더불어 그간 축적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행성인 회원을 위한 HIV/AIDS 교육 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2015. 6

이벤트 2014 퀴어퍼레이드 부스 참가
with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 커뮤니티 '알'

20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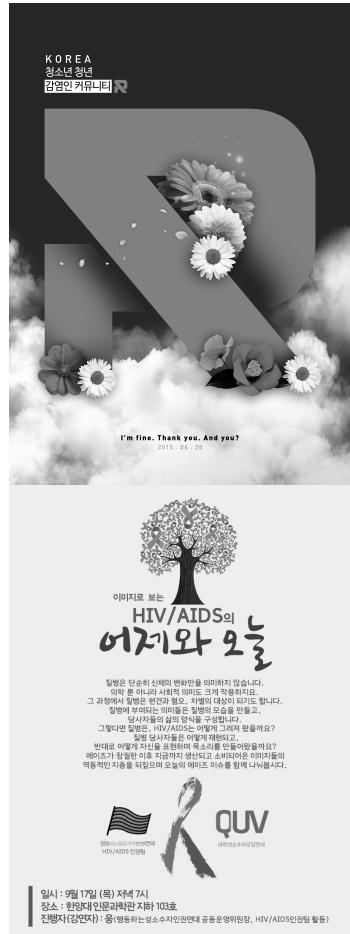
교육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
HIV/AIDS 인권팀 외부교육
(‘이미지로 보는 HIV/AIDS역사’) 진행

2015. 11

출판 행성인 HIV/AIDS 인권가이드북
<행성인 회원을 위한 HIV/AIDS 가이드북> 제작

2015. 12

이벤트 행성인 HIV/AIDS인권주간
RED PARTY (행성인, 친구사이, iSHAP, 이반시티,
퀴어문화축제)



HIV/AIDS에 대한 기본 의학적 지식

1) 정의

HIV	≠	AID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 HIV 감염인 : HIV에 감염되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AIDS는 HIV 감염 이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 → AIDS 환자 : HIV 감염인 중 CD4 림프구 수가 200/mm³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거나 기회감염 등의 AIDS 관련 증상이 나타난 사람

HIV 감염에 의해 인체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AIDS)이라고 합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므로 HIV 감염인 그리고 AIDS 환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2) 원인

HIV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HIV가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HIV의 감염 경로

1. 성 관계를 통한 감염 (감염 예방 조치 없는 1회 성 관계 시 0.01~0.1%)
2.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90~100%)
3. 수직감염 (임신 중 또는 분만 중에도 모두 일어날 수 있음, 25~30% 정도)
4.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0.5~1%)

HIV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접촉이나, HIV에 감염된 체액에 대한 단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악수, 포옹 등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접촉
- 음식 나누어 먹기
- 키스, 구강성교 (양쪽 모두의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없어 혈액 흡수의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 혈액 피부접촉
- 칫솔이나 면도기 공유
- 감염인이 사용한 변기, 목욕탕, 수영장 이용
-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린 경우

등으로는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3) 예방

국내에서 HIV 감염의 주요 경로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으로 99.1%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보고했으며,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한 HIV 감염은 콘돔을 사용하고, 안전한 성관계(Safe Sex)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콘돔은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기구”만이 아니라, 이성 간 및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HIV/AIDS 예방과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관계 시의 출혈 및 상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HIV 바이러스에 노출 된 경우, 사후적으로 HIV 치료제를 투약하여 HIV 감염 확률을 낮추는 의료적 조치도 존재합니다.

노출 후 예방법(Post-Exposure Prophylaxis, PEP)은 HIV에 노출되었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이들(ex.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 된 의료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감염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 성폭행 피해자 등)에게 약 한달 간 HIV 치료제를 투약하는 의료적 조치로 사후피임약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감염인이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예방목적 투약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출 전 예방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은 아직 한국에서는 접근 가능한 예방법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비감염인이 HIV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4) 진단

병의원과 보건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는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센터 iSHAP 등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HIV 감염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를 통한 선별검사와 웨스턴 블롯(West blot test)을 통한 확진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대개 감염 후 2~8주 정도면 혈액 속에 HIV 항체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항체가 늦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염 이후 12주(3개월) 이상이 지나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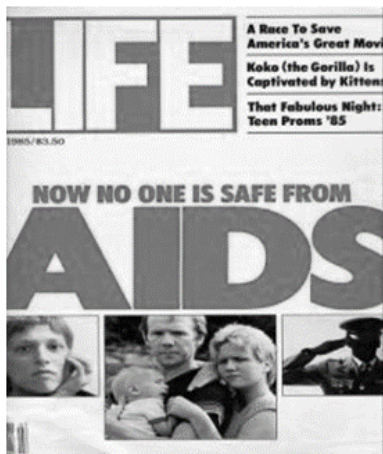
최근에는 구강점막액을 이용하는 오라퀵(OraQuick)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HIV 감염 여부를 자가검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할 시에는 검진 전후의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1차 검진의 경우에는 양성이라도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숙지해야 하며, HIV 확진을 위해서는 기관을 방문하여 2차적인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치료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에이즈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일부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으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카테일 요법(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이 도입되면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HIV 감염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 4가지 성분을 포함한 다성분 복합제가 개발되어 한 가지 알약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검사를 실시하여 HIV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면역검사와 진찰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HIV/AIDS의 역사

1980년대 초반



질병의 등장

미국의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pneumonia), 카포시 육종(Kaposi sarcoma) 등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게이 커뮤니티 내에 괴질에 대한 루머가 돌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보고되기 시작함. 주된 환자과 사망자들이 남성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게이 암(gay cancer)’, ‘게이와 관련 된 면역결핍 병(gay - related - immune - deficiency)’으로 불림.

1982

7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관련 보도가 나옴.
조선일보 기사 “〈움직이는 세계〉 미국 등에 미지의 괴질(怪疾) 크게 번져”

7월 27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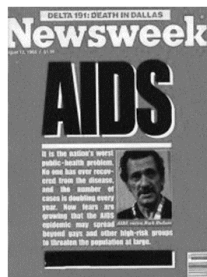
1982

6월 20일

국내 첫 HIV/AIDS 감염인 확인.
국내 거주 외국인 교수로 확인 즉시 본국으로 귀국함

12월

국내 첫 내국인 HIV/AIDS 감염인 확인



10월 2일

영화배우 록 허드슨(Rock Hudson)이 에이즈로 사망

1987

AZT (zidovudine)가 최초의 HIV/AIDS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음.

7월 27일

커뮤니티의 대응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네임 프로젝트 재단 (Name Project Foundation)'에서 에이즈메모리얼퀼트(AIDS Memorial Quilt)가 시작.

한 사람의 무덤 크기인 3x5피트의 퀼트에 희생자의 이름과 그를 기억하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새기는 작업. 애도의 의미가 담긴 퀼트들을 모아 공공 장소(e.g.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시.

행동주의 단체인 ACT UP(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결성, 질병교육과 FDA의 임상실험을 촉구.

강렬한 구호('Silence=Death')와 플랜카드, 티셔츠, 포스터, 피켓, 빌보드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 die-in, 점거 등의 퍼포먼스가 결합된 시위문화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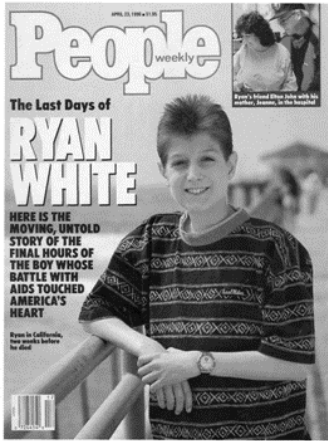
11월 28일

한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정 (1988.1.28. 시행)

도지사의 감염인의 명부작성 및 보고 의무 조항, 감염인의 치료와 보호 명목의 격리조치 및 강제처분 가능성,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하는 성행위' 등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금지조항 등 질병의 '통제'를 위해 감염인을 '통제'하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였음. 2014년 현재까지 다수의 개정을 통해 감염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점진적으로 삭제, 개정되었으나, 수정된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의 존재 등 문제가 남아있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국가의 진료비
자급 개시



1989

1990

4월 8일

라이언 화이트(Ryan White) 사망

HIV/AIDS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한 후, 학교와의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라이언 화이트의 사례는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크게 공헌함.

1995

카테일 요법 도입과 질병의 '정상화'

여러 종류의 항-바이러스제를 '카테일'처럼 함께 투약하는 치료법이 도입 됨.
HIV/AIDS 감염인의 기대수명 증가, HIV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카테일 요법의 도입으로 HIV/AIDS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2003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iSHAP 출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라+ 출범

iSHAP

- Ivan Stop HIV/AIDS Project의 약자로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한국 동성애자들의 HIV/AIDS 예방, 감염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홍보교육사업을 진행함.

2003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HIV/AIDS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과 치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연대단체.
출범 초기,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의사회로 구성.
현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공공의약센터,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한국 HIV/AIDS 인권연대 KANOS와 HIV/AIDS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음.

2008

10월 13일**다국적 제약기업 '로슈(Roche)' 규탄 국제 공동 행동**

정부가 제시한 보험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감염인을 위한 2차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의 한국 공급을 거부한 다국적 기업 '로슈(Roche)'에 항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들이 함께 공동행동을 진행함.

로슈는 2014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푸제온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환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무상공급'이라는 형태로 약을 제공하고 있음.

3월**제7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2008.9.22 시행)

나누리+를 중심으로 결성 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 복지부가 발의한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전 의원실을 통해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복지부 발의안과 병합 심의되어 예방의명령고지, 사업주 검사결과 제출요구 금지, 비밀엄수의무, 국제협력 등이 개정법률에 반영 됨.



2010

동성애자 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신설

2011

8월 26-30일

부산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대회 개최



2012

한국 HIV/AIDS 감염인 연합회(KNP+) 출범

HIV/AIDS 감염인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한국 최초의 연합단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 사회적 평등 이룩을 목적으로 결성된 감염인 자조모임 및 단체들의 연합단체.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TDF/FTC)의 예방목적 투약이 FDA의 승인을 받음.

비감염인이 에이즈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투약하는 노출 전 예방법

(PrEP; Pre - Exposure Prophylaxis)의 확산,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HIV/AIDS 감염인의

경우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연구 결과의 보고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서구에서의 HIV/AIDS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HIV/AIDS 감염인, 예방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접근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2013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해 온 S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본 사건 이후, S요양병원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임,

2014

2015

친구사이 ‘가진사람들’ 결성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PL 모임.

한국의 HIV/AIDS 정책과 현황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법률 제3943호)’을 제정(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침).

-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의 보호’.

- 실질적 영향: HIV 감염인을 추적하여 관리하고, AIDS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오히려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견고히 하는 효과를 가지는 법이었음.

- 문제점: HIV에 감염된 자의 신고(제5조), 감염자 명부작성 및 보고(제6조), 감염위험이 높은 특정 직업인에 대한 강제검사(제8조), 혈액제제 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 HIV 감염자 격리치료(제14조) 및 전파매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19조)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 특히, HIV/AIDS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는 법률 조항인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감염인을 일반인에게 HIV/AIDS를 전파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어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현행 법에서도 삭제 되지 않은 채 존재함.

1988년

전국에 29개 에이즈 전문진료기관 지정.

1989년

정부 차원에서 HIV 감염인에게 진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작.

2003년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개편되면서, ‘에이즈·결핵관리과(보건복지부령 제 264호)’ 신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에이즈 사업 기반이 마련.

2005년

의료기관에서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업 운영, 에이즈 환자 호스피스 센터와 국가 에이즈 사업 모니터단 운영.

2013년

S요양병원 환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이슈가 제기 됨. 감염인의 노후대책과 더불어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HIV 감염이 되었을 때 대처방법과 지지 자원

1) 처음 들어가면서

HIV 감염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이 높기 때문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슬픔, 분노나 죄책감, 절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더 이상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변화이기는 하지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정기적인 의료적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HIV에 감염되었을 때의 대처방법과 지지자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행성인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나 감염인 자조모임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

에이즈라는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차별은 감염인의 학교 및 직장에서의 생활을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감염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감염사실이 직장이나 학교에 자신의 감염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일할 권리나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IV 감염으로 인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IV 감염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이 존재하지만, HIV/AIDS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직장검진

HIV/AIDS 검진을 할 때에는 검진하는 사람이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검진 결과는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HIV/AIDS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정기 신체검사에서 HIV 검사 항목이 본인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에게 질병정보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검진 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직장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에 검진 결과서에 HIV 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사업주에게 질병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HIV/AIDS 인권단체에 문의하여 함께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면 감염인은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에 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직업 제한을 받지 않으나, 감염병에 대한 직업 제한이나 개별법(예. 선원법)을 통해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할길 원하거나, 종사자인 경우, 해당 직종이 감염병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치료비 지원

HIV/AIDS 감염인은 HIV/AIDS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HIV 감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료를 받은 후,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하며, 보통 1-3개월 내에 진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감염인이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에서 병원에 후납을 요청하여, 보건소가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으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HIV 감염이 최종 확인되어 통보된 날짜부터 진료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경제적인 지원

많은 감염인이 HIV에 감염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인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라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IV/AIDS라는 질병의 사회적 맥락상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직장을 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자체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을 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쉼터

에이즈 민간단체들은 감염인을 대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HIV/AIDS 감염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쉼터에 머무르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HIV/AIDS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와 비밀보장

HIV/AIDS는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감염내과 또는 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주로 3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도 HIV 감염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가 있어도 HIV 감염을 치료하지 않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HIV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HIV 감염 전문의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감염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치료가 신체적인 치료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HIV/AIDS는 동성애혐오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힌 역사가 긴 질병이며, HIV감염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기존의 사회적 지지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중요합니다.

HIV를 치료하는 병원에는 HIV 감염인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 간호사가 배치되어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에이즈 민간단체나 성소수자 단체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병원 및 보건소 공공기관에서의 HIV/AIDS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인의 진료에 참여한 담당의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개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으며, 만약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HIV/AIDS 감염인의 성적권리

HIV/AIDS 감염인이라고 해서 성적접촉을 제한 할 필요도 없고,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HIV/AIDS 감염인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HIV/AIDS에 감염되었다라도 콘돔을 사용하거나 몇 가지 세이프섹스(safe sex) 규칙을 잘 지킨다면 성관계를 통해 타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을 초기에 감염 사실을 인식하여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한 감염인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져 이 때의 HIV 전파 확률은 0%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희박해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정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존재로 인해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파매개행위 금지와 관련해 HIV/AIDS 감염인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염된 상처와 분노가 '피해자'로서 위치하게 만들고 있지만 또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동반합니다.

나를 감염시킨 사람이 처벌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이죠.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다른 표현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감염이 생긴 사람이 비감염인일 때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짝사랑도 아니고 관계의 폭력을 동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감염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비감염인과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거나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상처와 분노의 경험이 상대가 고스란히 느끼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겠죠.

모두 아는 얘기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을 숨기지 않은 상황에선 감염에 대한 우려를 잠시 내려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프섹스는 감염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있는 책임이 아니며 모두의 몫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걱정되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 모두 직접적으로 속 시원히 말로 터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감염인의 입장에서 감염인으로서 갖는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보다 ‘감염될 지도 모른다’는 과한 걱정과 우려가 감염인-비감염인 커플 사이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HIV/AIDS 감염인에게 사랑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6) 감염인 자조모임과 인권단체

HIV/AIDS 감염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은 HIV/AIDS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감염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HIV/AIDS와 관련한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일상에서 직면하는 실질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감염인 자조모임이나 인권단체들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염인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조모임,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인권단체와 감염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소개합니다.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한국 HIV/AIDS 감염인 연합회(KNP+) - <http://knppplus.org/>

- 소속단체

건강 나누리 - cafe.daum.net/gieenlifepl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 cafe.daum.net/R-YPC

러브포원 - <http://love4one.com>

가톨릭 레드리본 감염인 모임

대구경북지역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HIV/AIDS 인권단체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http://www.aidsmove.net>

HIV/AIDS 예방활동 및 감염인의 인권 향상을 고민하는 성소수자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www.lgbtpride.or.kr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http://chingusai.net>

iSHAP(아이샵, Ivan Stop HIV/AIDS Project) - <http://www.ishap.org>

HIV/AIDS 감염인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http://www.kaids.or.kr>

구세군 레드리본 센터 - <http://www.aidscafe.or.kr>

한국 가톨릭 레드리본 - <http://www.redribbon.kr>

에이즈 상담 자원센터 - <http://www.aids114.or.kr>

HIV/AIDS 감염인 회원과 함께 하는 행성인의 10가지 에티켓

행성인 내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HIV/AIDS 감염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정보를 숨기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행성인에 가입하고 난 뒤 HIV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인을 터부시하고 감염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HIV에 감염된 회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커밍아웃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HIV 감염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 지 상상해봅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이라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HIV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모두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보다는 적극적인 말 걸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티켓은 HIV/AIDS 감염인 회원을 직접 마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HIV/AIDS 감염인 회원들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HIV/AIDS 감염인 회원을 만났을 때 필요한 10가지 에티켓을 함께 나눕니다.

좋아요 하나. 지지와 공감이 먼저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지지), “참 힘들었겠구나! 용기 내줘 고맙다” (공감)

이런 말 한마디가 HIV/AIDS 감염인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 한마디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둘.

감염 사실을 안 초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 지”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HIV/AIDS 감염인 연합회 KNP+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소개해주거나 감염인 자조모임에 가입해 볼 것을 권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조모임을 찾아가기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는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좋아요 셋.

HIV/AIDS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거나 의료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 주변의 전문가나 인권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좋아요 넷.

당당하고 당연하게 함께 화를 냅시다.

에이즈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기사, 주변 지인들의 차별발언들, HIV/AIDS 감염인을 터부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회문화 등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섯.

HIV 감염인이라고 무조건 위로와 걱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당신이 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주세요.

안돼요 하나. 호기심은 안됩니다.

“어떻게 감염된 거야?” “누구한테 감염된 거야?”와 같이 질병감염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안돼요 둘.

“백천 년들이 에이즈 걸리지”와 같이 **감염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안돼요 셋.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감염되었다더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다면 그 소문의 출처를 확인해 잘못된 행동임을 단호히 지적해야 합니다.

안돼요 넷.

잘잘못을 따지는 태도도 안됩니다. 질병감염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초기 감염인의 경우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에 대한 원망도 들고, 앞으로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갖게 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돼요 다섯.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성관계할 때 조심해야 한다거나, 콘돔을 꼭 써야 한다거나, 앞으로 애인을 만날 수 있겠냐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맙시다.

지나친 걱정은 거부감이 들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감과 격려, 그리고 함께하기

2005년 2월 누군가로부터 HIV감염 사실을 통보 받았다.

‘올 것이 온 건가?’ ‘내가 왜, 하필’... 얼마 뒤부터 난 혼자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 근처의 찜질방에서 자고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혼자 있다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밤이 온다는 것이 고통일 때! 여지 없이 찾아간 종로의 F라는 원샷바에서 아무일 없는 듯 웃으며 술 기운으로 몸의 피로를 녹일 때 반가운 두 남자가 등장했다. 행성인의 늙은 활동가 Y와 B였다.

그들은 감염인으로서의 나를 이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으로 조심스럽게 감염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식의 애써 웃음 보다는 당황해하고 단 10분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만나고 알고 있는 감염인을 이야기 했다.

소름끼치듯 그 둘이 해주었던 말은 아직도 나의 뇌 구조의 어딘가에 꼼꼼하게 새긴 듯 하다.

“얘기 해주어서 고마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공감과 격려, 그리고 함께 하기

많은 이들이 초기 감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내가 감염이 된 것을 안지 얼마 안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추정한다 해도 언제 감염이 되었다라고 누구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주변과 여러 가지들이 변화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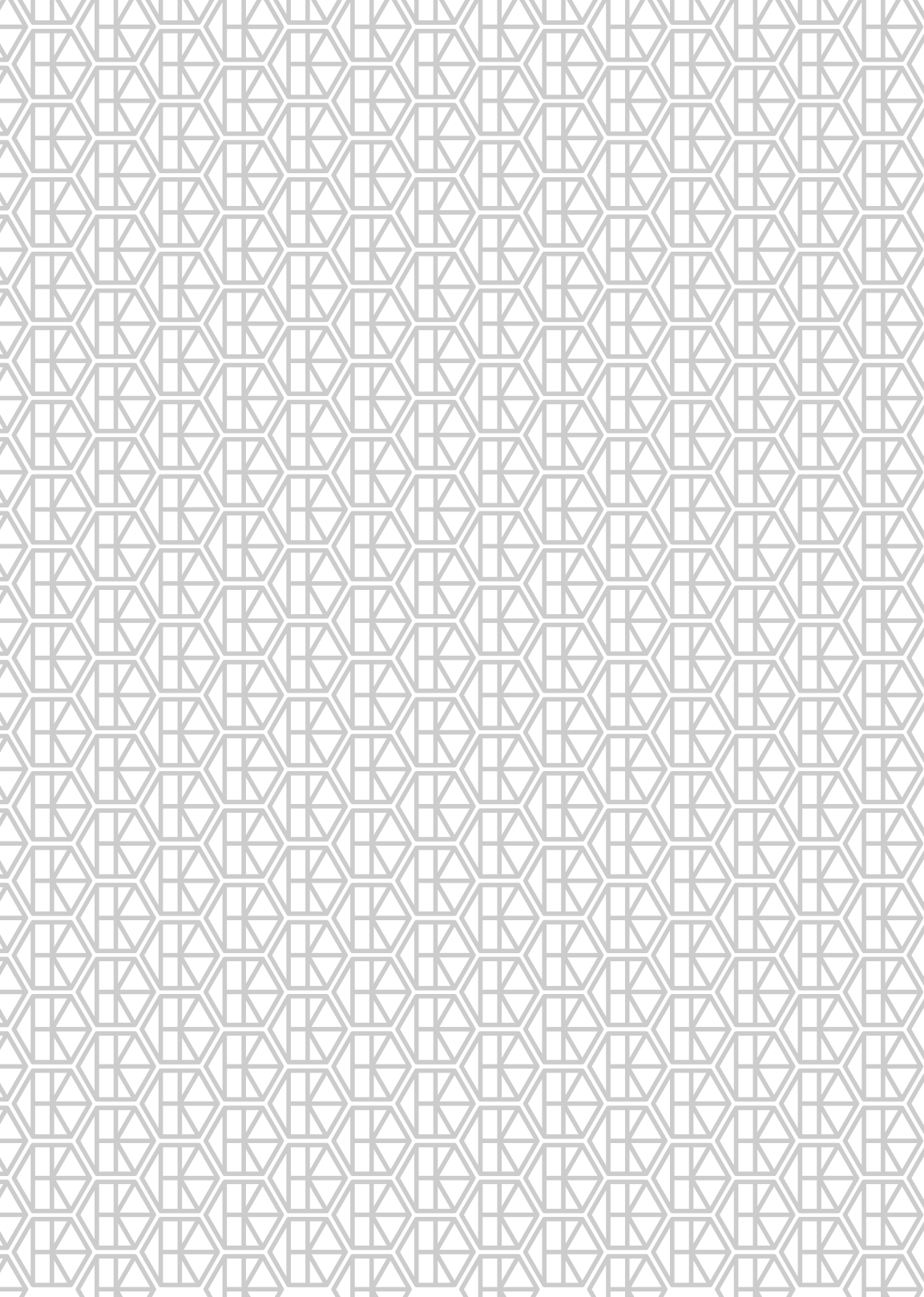
혼자서 준비하고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HIV에 감염이 되었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감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당황함을 애써 감추지 않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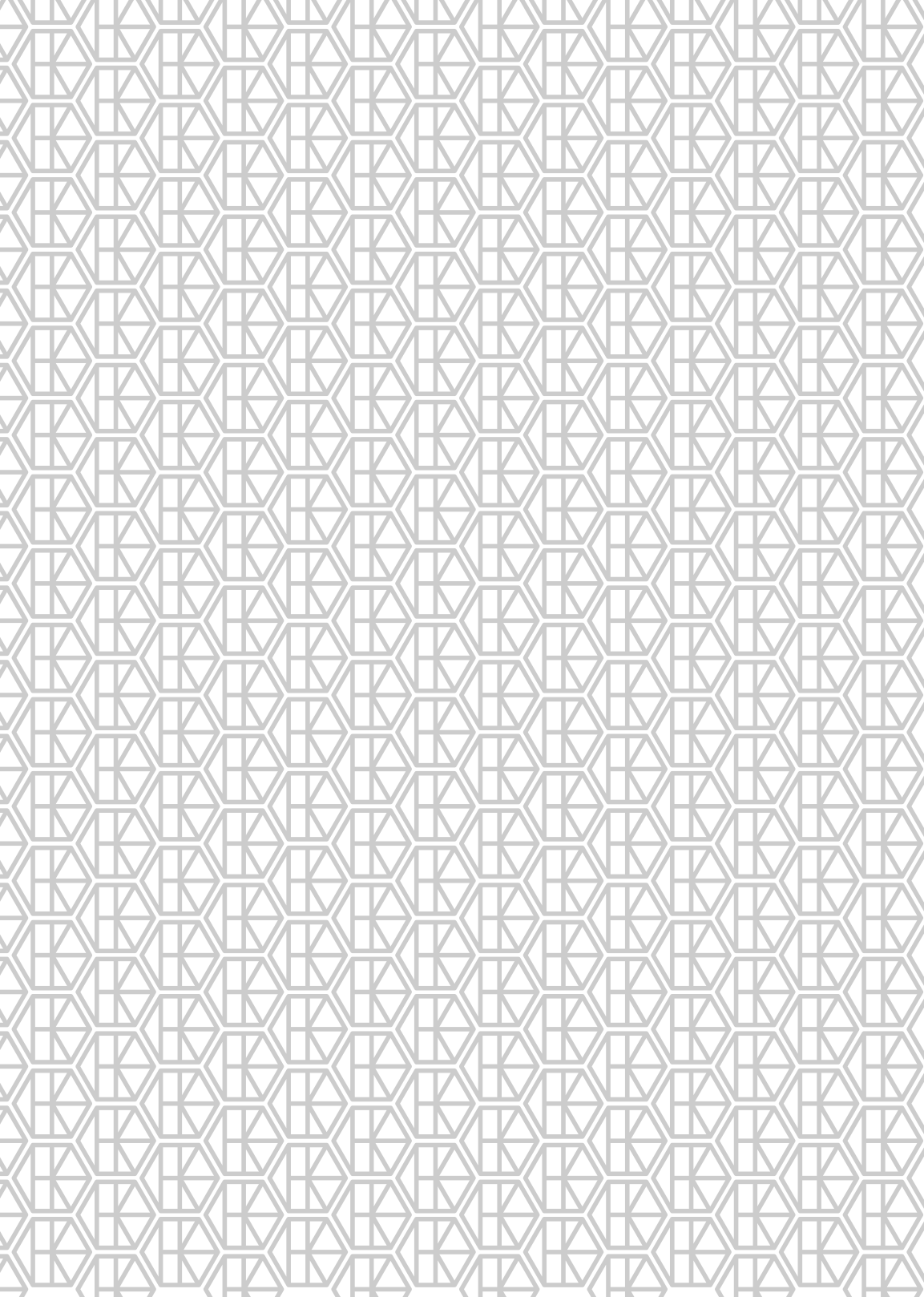
솔직함은 바로 공감의 시작인 것이다.

다음은 그 두 친구가 나에게 해주었던 용기를 내어 주어서 고맙다는 격려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며 함께 하겠다는 동료애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감, 격려, 함께... 그럼 감염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영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행일 : 2015. 12. 01

펴낸 곳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omepage - <http://www.lgbtpride.or.kr>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LGBTQaction>

Twitter - <https://twitter.com/lgbtaction>

E-MAIL - lgbtaction@gmail.com

PHONE - 070-7592-9984

FAX - 02-334-9984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림)

만든 사람들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편집 : 호림, 모리

Designed by 소리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